



LA한국교육원, ‘한국의 달’ 맞이 네바다주 한글학교 교사 연수 및 유학설명회 등 개최

- 한글학교 학생, 학부모, 교사 뿐 아니라 지역주민, 유학준비 대학생 등 100여 명 참석
- 10년 만에 열린 연수를 축제처럼 즐겨

-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‘한국의 달’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4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한인 동포 자녀 뿌리교육과 한글학교 교사연수를 리노한국학교(교장 임선미)에서 실시하였습니다.
 - 네바다주 리노는 2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어·한국문화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, 10년 만에 열린 이번 연수는 가문의 단비와 같이 현지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.
 - 특히, 이날 연수에는 리노 지역의 한인들 뿐 아니라 한국어를 학습하는 비한국계 대학생, 한국유학 준비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.
- 이번 연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한인 2·3세 대상 독도교육과 한국유학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 - 학생들 60여 명이 참여한 ‘독도 바로 알기’ 계기 교육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의식에 대한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.
 -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‘찾아가는 유학 설명회’에서는 한국 유학의 장점과 최신 동향, LA한국유학지원센터 소개, 유학 정보 사이트 및 준비 절차 등 한국 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.

○ 교사 연수에서는 교사 자격 및 수급 방안, 정규학교 한국어반 및 한국어 클럽 개설, 한국어능력시험장 설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□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선미 리노한국학교장은 “리노 지역에서는 연수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, 뿌리 교육과 유학 설명회, 교사 연수가 한자리에서 진행되어 학생과 학부모, 교사 모두에게 유익했다” 라고 전했습니다.

□ 강전훈 교육원장은 “지역 한인사회의 중심이자, 한인 유·청소년의 뿌리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·발전할 수 있도록,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” 라고 밝혔습니다.

붙임 1 : 사진 7부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<사진 1. 10년 만에 열린 연수를 한인 축제처럼 즐기는 참석자들>



<사진 2. '독도 바로 알기' 계기교육 실시 모습>



<사진 3. 독도 모형 만들기 실습>



<사진 4. 열심히 독도 모형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>



<사진 5. 찾아가는 유학 설명회>



<사진 6. 찾아가는 교사 연수>



<사진 7 LA한국교육원이 리노를 찾아갑니다>

